

# 한국적 정서가 담긴 작품들, 그의 삶과 예술혼

# 김환기를 반기다

탄생 100주년 '김환기, 백년되어 고향에 돌아오다'전

광주시립미술관 28일~9월22일

점화·종이유화·달 시리즈 등 작품 80점, 사진, 캔버스 등 전시



1956년 파리 화실에서 아내 김향안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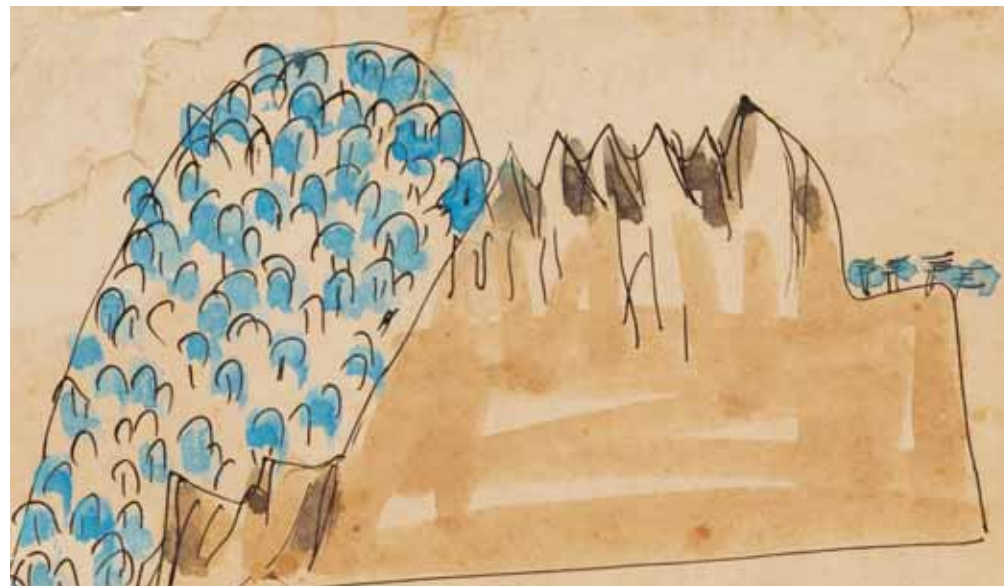
‘고향만큼 좋은 곳이 있으랴.’

한국 근·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신안 출신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작품에는 고향 풍경이 오롯하다. 고향의 푸른 바다와 자연 그리고 한국의 하늘과 바다를 유난히도 사랑했던 그는 그것들을 화폭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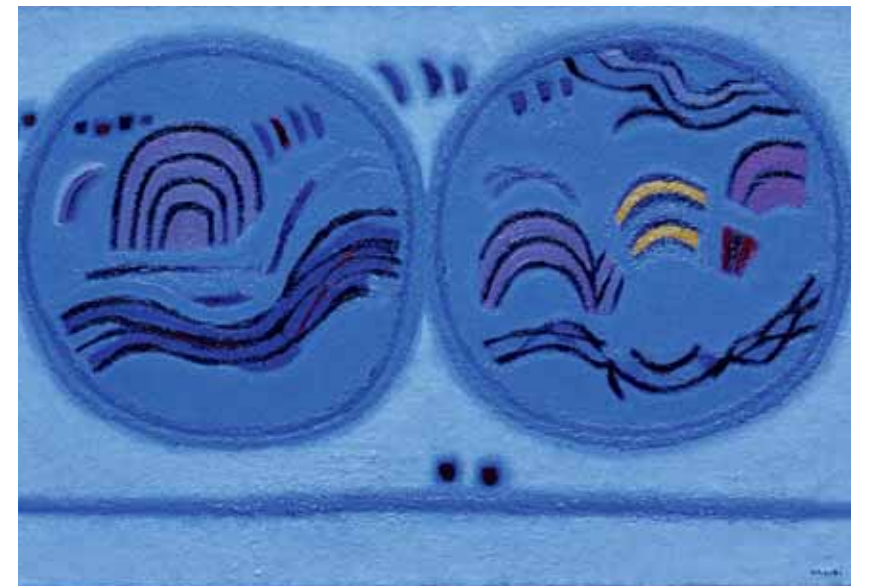
김환기 화백은 1913년 신안 안좌도(옛 기좌도)에서 태어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냈다. 이후 일본, 서울 등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고향을 왕래하며 안좌도의 자연을 화폭에 녹여냈다.

오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환기의 푸른색’이라 불리는 그의 청색은 어쩌면 한국적인 것을 넘어 무한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서 보았을지언 자연의 향수를 함축하고 있다.

그는 1962년 수필 ‘고향의 봄’에서 “내 고향은 전남 기좌도(현재 안좌도). ... 그 꿈 같은 섬이요, 꿈속 같은 내 고향이다. ... 나에게 고향 생각이란 곧 안산(고향 마을) 생각뿐...”이라고 썼다. 뉴욕에서 생을 마감한



‘풍경을 위한 수채화 습작’



‘달 두개’

그에게 고향은 작품의 소재이자 가장 그리워 했던 곳이었을 것이다.

작가 스스로 고향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펼쳤지만 정작 고향인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김환기 화백의 작품과 전시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많은 작품을 남기고 미국 뉴욕 웨스트체스터 공동묘지에 묻힌 그가 100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8일~9월22일까지 미술관 3, 4 전시실에서 ‘김환기, 백년되어 고향에 돌아오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환기 화백의 대표작인 전면 점화작품 다수를 포함해 종이 유화, 달항아리 시리즈, 초기 드로잉 등 모두 80여점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물감과 캔버스 등 유품 15점과 예전 도록과 팸플릿,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들이 함께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 2월 환기미술관에서 열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전과 지난 7월 갤러리 현대에서 진행했던 ‘Works on paper’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대규모 100주년 기념전이다.

김환기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광주시립미술관과 신안군청, 갤러리현대, 환기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목포MBC, 개인소장가 등의 협조로 마련됐다.

김환기 화백은 독보적인 감수성과 안목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연의 미와 한국 전통미의 조형성과 내재적 의미를 탐구했고, 이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사고해 추상회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믿는 소재의 본질적인 요소를 추출해 그만의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했고, 이를 점, 선, 면, 색으로 단순화시킨 추상회화를 완성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쉽게 볼 수 없었다”며 “김환기 화백의 고향의 자연과 고향 취미에서 연유한 작품, 한국적 정서와 독창미를 이룩한 그의 예술세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전시다”라고 말했다.

9월3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광주지역 주요 인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00.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 월간 **에디닝** 9월호

특집 ‘광주 그리고 디자인’ 기획 ‘대한민국은 독서 중’

## ‘더불어 사는 삶’

김옥애씨 동화그림책 ‘흰 민들레 소식’ 발간

광주일보 자매지 월간 ‘에디닝’ 9월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으로 발간된 9월호에는 특집 ‘광주 그리고 디자인’과 기획 ‘대한민국은 독서 중’ 등 심층기사와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광주 공공디자인의 한계와 발전 방향을 다룬 ‘광주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념과 정책을 들여다 보았다. 광주시는 2013 디자인코리아, 2015년 디자인연맹총회를 발판삼아 도시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도시 디자인이 없는 실정이다. 광주가 아시아 디자인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기획 ‘대한민국은 독서 중’에서는 거세게 불고 있는 독서 열풍을 분석했다. ‘원 북 윈

시티’ 프로젝트, 독서 전문채널, 문학 팟캐스트 등 다양한 책읽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다. ‘원 북 윈 시티’ 성공모델로 뜨고 있는 순천 기적의 도서관, 책 읽는 마을을 넘어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범시민 한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남대 현장도 둘러보았다.

예향초대석에서는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를 만나 ‘잡지계의 여왕’으로 불리게 된 CEO로서의 삶과, 디자인으로 대중과 소통해온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마주 앉은 책과 삶’에서는 조선대에서 15년째 명심보감을 강의하는 개그맨 김병조 씨의 지난 인생과 책과의 인연을 소개한다.

‘이 사람’ 코너에서는 광주 독자를 찾아 강의를 한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이창래 프린스

턴대 교수와 연예인 지망생 교육기관을 광주에 연 인기 작곡가 김형석 씨의 인터뷰가 수록돼 있다.

‘이달의 아티스트’에서는 최근 장편 ‘28’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함평 출신 정유정 작가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과 고통스러웠던 습작시절 등 궁금했던 이야기가 펼쳐진다.

9월호에는 가을을 맞아 레저 여행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반영한 제13회 영광발갑산 상사화축제와 2013명량대첩축제에 대한 기사 그리고 ‘문화역사기행’으로 김삿갓의 시인이 서려 있는 화순 동복을 다뤘다.

‘행복한 컬러’에서는 평생 수석을 수집하고 있는 석촌수석박물관 오기배 관장을, ‘스타 데이트’에서는 목포 출신 탤런트 최진혁을 만났다. /박성천기자skypark@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동화작가 김옥애(68)씨가 그림 동화책을 발간했다. 이번에 김씨가 펴낸 ‘흰 민들레 소식’(청개구리 간)은 강진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이웃과의 아름다운 나눔을 일깨운다. 작품은 지난 2012년 월간문학 8월호에 실려 한국문학인협회 9월의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화는 전남 강진 대구면 중저마을과 가우도 출렁다리 부근, 도예학교 운동장을 배경으로 피어 있는 흰 민들레를 모티브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김 작가는 지난 2010년 고려시대의 청자 운반 재현을 담은 장편 동화 ‘그레도 년 보물이야’(청개구리 간)를 발간, 고향 강진과 고려청자에 대한 사랑을 오롯이 담아내기도 했다.

강진 출신인 김씨는 광주교육대학교 호남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1999년 명예퇴직 후 동화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동화집 ‘이상한 안경’ ‘너는 어디로 갔니?’ ‘별이 된 도깨비누나’를 냈으며 광주예술문화특별교과, 한국아동문학작가상, 광주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농심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